

##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10.17



# 1 기후기술 동향

##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FCCC, COP23 개최</li> <li>- 일시/장소: '17.11.6-17 / 독일 본</li> <li>- 주요의제: 조직적 사항, 부속기구의 보고, 파리협약 개정조항에 따른 당사국의 제안 검토, 적응위원회의 보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손해에 대한 Warsaw 국제 메커니즘, 기술/재정 메커니즘 관련 이행사항 및 젠더이슈 등</li> </ul> <p style="text-align: right;">(UNFCCC, 10/16)</p>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기관 총 379개 ('17.10.13 현재)</li> <li>- 2개 기관* 가입승인</li> <li style="padding-left: 20px;">*캐나다(1), 스페인(1)</li> </ul>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회원기관 총 46개 ('17.10.16 현재)</li> <li>- (주)해강기술, APEC 기후센터</li> </ul>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DE 총 158개 ('17.10.16 현재)</li> <li>-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쌀부문의 저탄소 생산을 위한 바이오 폐기물 최소화 TA」 워크숍 개최</li> <li>- 일시/장소: '17.9. / 베트남</li> <li>- 요청기관: Vietnam Cleaner Production Center Co. Ltd</li> <li>- 이행기관: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li> <li>- 참석자: 정미기술, 연구, 투자 관계자 약 40여명</li> <li>- 주요내용: 사례 공유 및 관련 사업장 방문</li> <li style="padding-left: 20px;">* 네덜란드 소재 NGO로 38개 극빈국의 빈곤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사업 분야는 농업/신재생에너지/WASH 등이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TGN/CAIA INGENIERIA 웨비나, 「콜롬비아 탄소세」</li> <li>- 일 시: '17.10.18, 15:30~17:00 (CES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최: CAIA Ingenieria S.A.S*</li> <li>- 주요내용: 콜롬비아의 탄소세 구축 현황 및 시사점 도출</li> <li>- 발표자: Rodrigo Suárez (CAIA Ingenieria, Director of the Climate Change Unit)</li> </ul> <p>* 2005년에 콜롬비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실행 및 세금 인센티브 등과 관련된 컨설팅 수행</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CTCN, 10/13)</a> (<a href="#">Registration, 10/13</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및 재원을 통한 기후해결」 중앙아메리카 지역포럼 개최</li> <li>- 일자/장소: '17.10.18~20 / 파나마</li> <li>- 주요내용: NDC 분석을 통해 국가/지역 단위별 우선전략 순위 작성, 적정 기술 파악, 제반여건 및 이해관계자 파악, GCF 연계 컨셉 노트 작성 등</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CTCN, 10/13)</a></p>
GCF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F, 몽골 10MW 태양광 사업 승인</li> <li>- GCF는 8.65백만달러 규모의 몽골 태양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392.86백만 달러에 이르는 11개의 기후재원이니셔티브를 승인</li> <li>- 금번 승인된 몽골 태양광 사업은 몽골 XacBank LLC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15,400MWh의 전기를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12,270tCO<sub>2</sub>/year로, 이는 2030년까지 총 전기공급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몽골의 NDC 달성에 기여할 예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RenewablesNow, 10/4)</a></p>

##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GG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GGI, 5주년 기념 녹색성장주간(GGGW) 개최</li> <li>- 10.17일(화)-21일(금)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의 녹색성장 잠재력 개발 (Unlocking Africa's Green Growth Potential)'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GGGW는 GGGI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및 파리협정 이행에 기여코자 기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한국대표단은 18일 '아프리카의 NDC 이행 및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측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 <a href="#">(외교부, 10/16)</a></li> </ul>
	(재) 기후변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GCF 기후금융 프로젝트 교육과정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재원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기후 변화대응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0.26-27일 양일간 개최</li> <li>- 1일차에는 기후금융메커니즘 및 GCF승인기준, 2일차에는 개도국 기후 기술 우선순위 분석 및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 <a href="#">(투데이에너지, 10/12)</a></li> </ul> </li> </ul>
	한국기상산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기상기술엑스포 2017, 국내기상기업들 해외서 우수 제품 및 기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0-1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내 총 8개 기상기업들이 참가하여, 3차원 초음파 풍향풍속계, 기상수치모델 자료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 등 국내 기상기후산업 분야 우수기술을 전시</li> <li>- 이는 국내 기상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a href="#">(아시아투데이, 10/11)</a></li> </ul> </li> </ul>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회의'와 '201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 동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포용적 성장 도시 캠페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의 확산을 위해 OECD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챔피언 시장'들은 함께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연계 방안,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정책 등을 논의</li> <li>- 20일에는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이 서울시와 이클레이(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의 이행과 확산'에 대해 논의 <a href="#">(연합뉴스, 10/16)</a></li> </ul> </li> </ul>

###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 일반	<p>○ 기재부, 기후변화대응사업 참여 개도국 공무원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는 GCF를 통한 개도국 기후사업 수행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재원의 직접접근* 강화’를 주제로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강원도에서 제3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발도상국 연수를 개최</li> </ul> <p>* 직접접근: 사업발굴-신청-실행 등 일련의 사업 수행과정을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개도국이 직접 수행하는 것</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연합뉴스, 10/15)</a></p>
		<p>○ 환경부 국정감사, 에너지관련 환경 정책적 대응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개선방안, 고형연료 폐기물 무단방치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이 논의 되었지만 여전히 주요논의주제로 예정되었던 이산화탄소포집(CCS)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고형연료 재활용 관련 에너지 정책은 국감주제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김</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에너지경제, 10/15)</a></p>
		<p>○ APEC 기후센터, 2017년도 제2차 사용자맞춤형 기후정보 생산 교육 프로그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28-29일 양일간 아태지역 개도국의 수요자들에게 기후정보화 상세화기법을 활용해 각 국가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 및 수자원 분야 수요자 맞춤형 기후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li> <li>- 기존 개도국 수요자에게만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국내 관계 기관 및 대학 등 국내 기후정보사용자로 확대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일요신문, 9/29)</a></p>
국외	일본	<p>○ 일본-에티오피아, 첫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JCM 사업의 일환으로 아디스아바바 하와스 공업단지 내, 대나무 바닥재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대나무 잔여물(바이오연료)을 재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열병합발전소 건축작업에 착수하여 2019년 완공예정</li> <li>- 해당 사업으로 7,940tCO<sub>2</sub>/year를 감축 예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JCM웹사이트, 10/12)</a></p>

		<p>○ <b>일본-베트남, 6차 Joint Committee 개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10.10 하노이에서 6차 Joint Committee를 개최하고 '고효율 아몰퍼스 변압기 도입' 및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도입'의 2 프로젝트에 대해 총 439tCO<sub>2</sub>의 크레딧을 인증</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JCM웹사이트, 10/10)</a></p>
	독일	<p>○ <b>독일 에너지기업 Innogy, 독일내 첫 기업발행 녹색채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수익은 전기차,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고, 첫 수익금은 영국의 해상 풍력발전프로젝트 4개 및 네덜란드의 육상 풍력발전프로젝트 1개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어, 총 3TWh의 전기를 공급할 것</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Innogy, 10/12)</a></p> <p>○ <b>독일,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에너지 산업사이 균형점 강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르켈 총리는 지난 12일 광산 및 에너지 노조 총회에 참석하여,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발전 분야의 '탈석탄'*추진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힘</li> <li>- 따라서, 총선시 문제가 되었던 '디젤차 퇴출', '탈원전'등의 공약에 대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힘</li> </ul> <p><small>* 독일은 2007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2011년 '탈원전' 선언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추세</small></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조선일보, 10/16)</a></p>
	EU	<p>○ <b>EU, 신기후체제의 'Leadiator (리더+중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연합(EU)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따른 빈자리를 기회로 삼아, 중국과 함께 신기후체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li> <li>-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별 공동노력 부담 및 항공사를 ETS에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중</li> <li>-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연결고리 역할인 '중재자'로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회원국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힘</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전기신문, 10/11)</a></p>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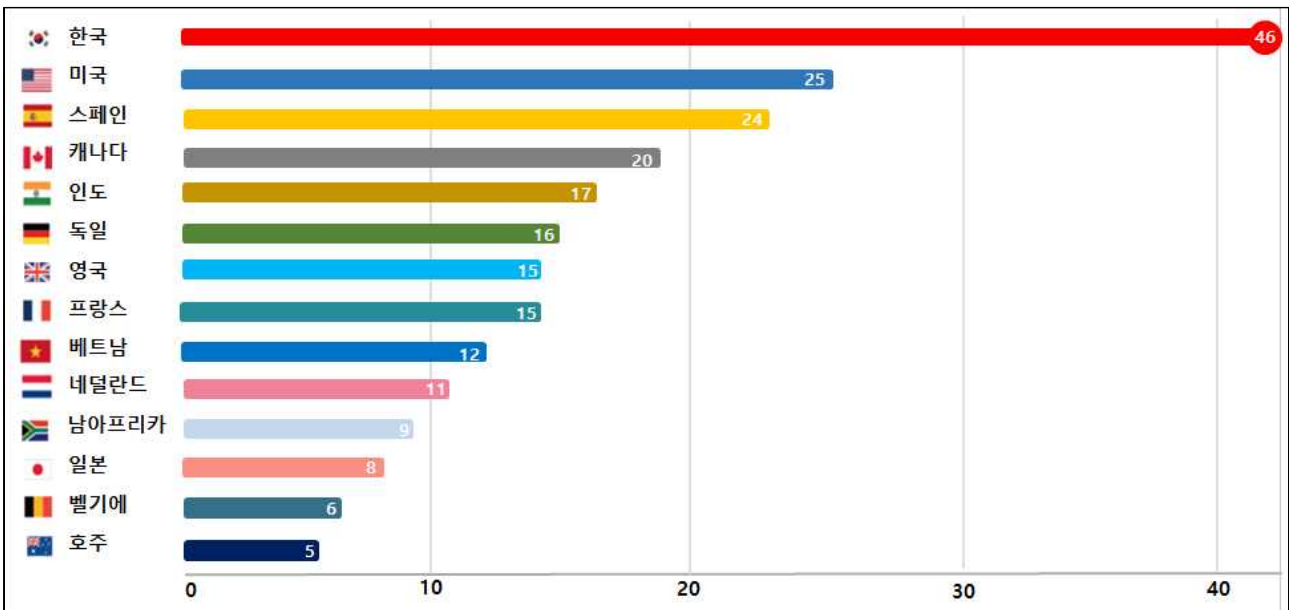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10.13.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68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7.10.13.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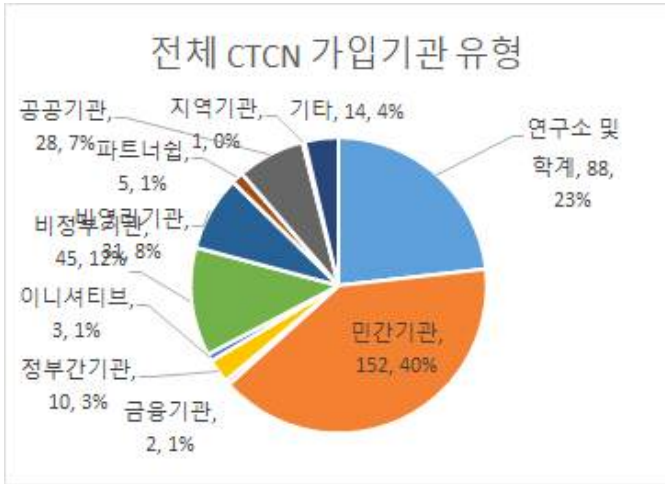
- 총 379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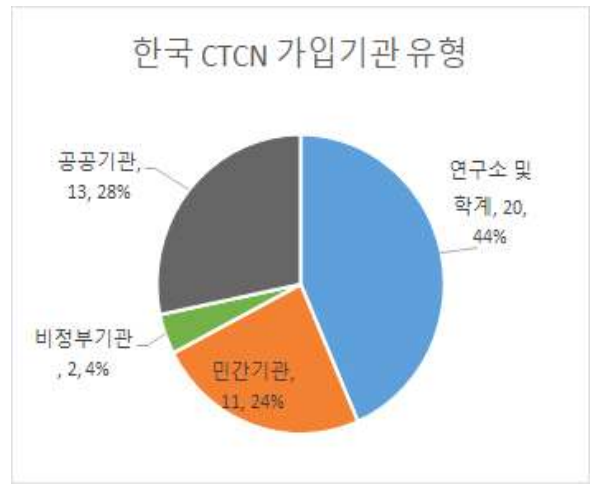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10.16. 현재)



<CTCN 전체 379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6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379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43건으로 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78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0건(12%), 29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6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44%)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28%)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10.16. 현재)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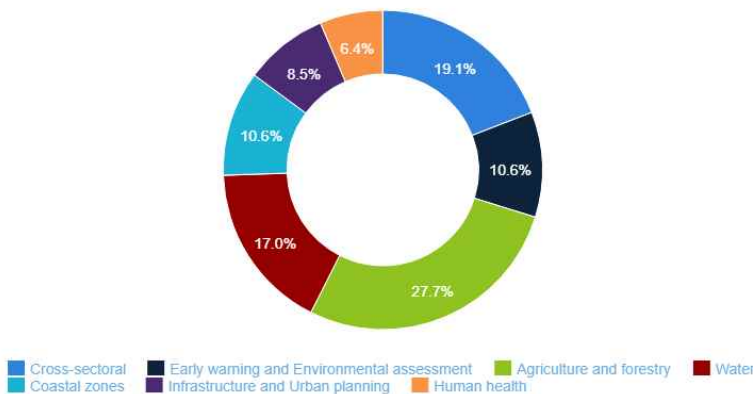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10.13 현재)

- 제출된 TA : 195개
- Active TA : 106개 (감축관련 TA-44.7%, 적응관련 TA-29.3%)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